

- 주요 뉴스: 영란은행의 일부 인사, 금리인상 압박 신호를 강화 등
 - 일본 총리, 금융소득세 개편을 당분간 검토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
 - 미국 재무장관, 글로벌 최저한세율의 미국 내 입법에 낙관
 -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, 고용회복 중단 우려는 시기상조
 - 국제금융시장(주간): 미국은 부채한도 위험 완화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영향
 주가 상승[+0.8%], 달러화 강세[+0.03%], 금리 상승[+15bp]
 - 주가: 미국 S&P 500 지수는 의회의 임시 부채한도 확대 합의 등이 영향
 유로 Stoxx 600 지수는 성장둔화 우려 불구 완자재 및 금융주 강세 등으로 1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미 고용지표 부진에도 테이퍼링 지속 예상 등으로 소폭 상승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2%, 1.1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유가 급등, 고물가 지속 가능성 등이 배경
 독일은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7bp 상승
- 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0.5% 약세, 한국 CDS 상승

		10/8일	10/1일	전주말대비			10/8일	10/1일	전주말대비
주가	미국	4,391.3	4,357.0	0.79%	국채 금리 10y	미국	1.61%	1.46%	15bp
	유럽	457.30	452.90	0.97%		독일	-0.15%	-0.22%	7bp
	중국	3,592.2	3,568.2	0.67%	CDS 5y	한국	21bp	19bp	1bp
	일본	28,049	28,771	-2.51%		중국	52bp	46bp	7bp
	한국	2,956.3	3,019.2	-2.08%	위험 지표	EMBI+	374bp	379bp	-5bp
환율	달러지수	94.07	94.04	0.03%		VIX	18.77	21.15	-11.25%
	유로화	1.1569	1.1596	-0.23%		WTI유	79.35	75.88	4.57%
	엔화	112.24	111.05	-1.07%	원자재	구리	427.6	418.9	2.08%
	위안화	6.4437	6.4448	0.02%		금	1,757.1	1,761.0	-0.22%
	원화	1,194.6	1,188.7	-0.49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영란은행의 일부 인사, 금리인상 압박 신호를 강화

- 손더스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있어 가계는 금리가 상당히 이른 시점에 인상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.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베팅을 앞당긴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
- 베일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인 2%를 상회하는 현상이 영구화되면 경제에 매우 해로울 것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. 또한 9월 고용 유지정책 종료 이후에 실업률이 추가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
- 쿠르탱 기업·에너지 산업전략부 장관은 영란은행이 물가를 적절히 억제할 것이며, 정부는 임금 인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발언. 운송업 등에서의 고용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일본 총리, 금융소득세 개편을 당분간 검토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

- 기시다 총리는 현재로서는 금융소득세 변경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, 분배 어젠다 관련해서는 의료종사자 임금인상 등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발언
- 금융소득세 강화 기조 등이 최근 일본 증시 불안을 초래했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가운데 우려를 완화할 목적으로 해석. 10/31일에는 중의원 총선거를 앞둔 상황

■ 미국 재무장관, 글로벌 최저한세율의 미국 내 입법에 낙관

- 옐런 재무장관은 136개국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 민주당 단독의 예산조정법안에 포함될 가능성 시사

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, 고용회복 중단 우려는 시기상조

- 데일리 총재는 델타 변이 영향으로 경제가 타격을 입었지만, 회복 경로를 이탈하여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발언.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이라는 견해를 고수

■ 미국 공화당, 연방정부 부채한도 확대 관련하여 추가 협조 의사가 없음을 피력

-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,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부채한도 관련하여 더 이상 민주당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
- 엘런 재무장관은 부채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의회의 책임이며, 민주당 펠로시와 척슈머 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발언

■ 중국, 미중 통상분야 고위급 통화에서 미국에 관세 철폐를 요구

-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(USTR)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화상통화를 개최한 이후 신화통신은 중국 측이 추가관세 및 제재 해제를 요청했으며, 자국의 경제 발전 모델과 산업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발표
- USTR 성명에 따르면 양측이 무역협정 이행을 검토하고 특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며, 타이 대표는 중국의 국가주도, 비시장관행에 우려를 표명

■ 영국, 에너지집약적 산업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중

- 쿠르탱 산업전략부 장관은 가스 가격 급등으로 타격을 입은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탐색 중이라고 밝혔으나 구제금융 가능성은 배제. 또한 에너지가격 상한 인상은 불가능하며,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

■ 인민은행 총재, 기술 독점행위에 대한 규제방침 재확인

- 이강 인민은행장, 중국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며, 중앙은행도 규제당국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 방침 표명

■ Goldman Sachs, 미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

- 소비 회복 지연을 이유로 '21년 성장률은 5.6%, '22년은 4%로 각각 0.1%p, 0.4%p 하향. 중기 위험요인은 재정지원 둔화 및 서비스 소비 회복 지체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0/11 현지시각 기준)

- 이탈리아 8월 산업생산, 터키 8월 실업률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53, E-mail shhong@kcif.or.kr